

“감정 골 남지 않게”... 법원 ‘바른 이혼’ 돕는다

광주가정법원, 조기 개입 모델 개발 나서 객관식형 소장 작성·의무상담제 운영 등

#. 이혼소송 중인 A씨는 아내가 제출한 이혼 소장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 아무리 헤어지기 된 마당이지만 소장 곳곳에 자극적 단어를 동원, 험담은 것이다. 물론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라지만 ‘감정의 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광주가정법원이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정나미 떨어지지 않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소장 양식을 사건 기술 방식이 아닌 객관식 체크(V) 방식으로 바꿔 서로 간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11일 광주가정법원(법원장 정재운)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혼사전 조기개입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을 지우려고 상대방을 맹비난하게 된다. 관련 법이 잘못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작 관심을 쏟아야 할 자녀 양육 계획, 재산 분할 등을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광주가정법원은 현재의 가사재판 방식으로는 분쟁 해결이 아니라 갈등만 증폭시켜 당사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가사소송모델 개발을 모색 중이다.

이 중 하나가 서울가정법원의 ‘조기개입모델’이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범 시행한 이 모델은 이혼 소장·답변서·조정신청서 등 소송서류 양식의 개선과 후견적 조기 개입이 핵심이다.

소장 양식은 서로를 험담할 수 없도록 객관식 체크(V)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어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 사정’에 대해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자은 외박 □폭행 □욕설 □폭언 □무시·모욕 □시기·처가와의 갈등 □알코올 중독 등등에 체크(V) 하는 것이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의 경우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직권으로 사전처분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앴다.

이 모델 도입으로 서울가정법원은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한 이혼이 4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의 만족도도 4점 만점에 2.96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가정법원은 이 모델을 기초로 광주만의 맞춤형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장 양식을 바꿔야 하고 조사관의 업무 증가 등이 불가피해 법원 내부와 변호사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이다.

박현수 광주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혼율을 줄일 수 없다면 ‘바른 이혼’을 유도해 이혼 이후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원 내부와 변호사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광주가정법원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정기자 jwpark@



“5·18 의미 담았어요”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 열린 주먹밥 만들기 체험에 참가한 삼각초등학교 학생들이 1980년 5·18 당시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한 모양의 주먹밥을 만들고 있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아버지는 사람도 아냐”... ‘친부 살해 남매’ 원한 가능성

범행 동기 이틀째 침묵... 존속 살해, 재산 상속 못받아

아버지 살해 친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매가 이틀째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면서도 아버지에게 대한 강한 복수심을 보이고 있어 ‘원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추정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1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아버지인 문도(7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

해)를 받고 있는 문씨의 딸(47)과 아들(43)을 이틀째 조사했지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광주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문씨 남매는 현재까지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남매는 조사 과정에서 2011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애도함을 표현하면서도 유독 자신들이 살해한 아버지

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 요양급여를 타내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며 “어머니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했으며, 우리도 어린 시절 폭행당했다.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매가 문씨의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둔기 등으로 폭행한 점도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 표출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추정만 할 뿐

원한인지, 재산 때문인지 단정지을 수 없다”며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매는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숨진 문씨가 소유한 30년 된 아파트(79.67㎡)의 거래가는 현재 1억5000만원 선이다. 민법 제1004조 1항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버지를 살해한 남매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1, 해질 19:27, 달 뜨기 10:40, 달 지기 --:--

따가운 햇빛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2/26	보성	맑음	10/23
목포	맑음	13/21	순천	맑음	11/24
여수	맑음	13/21	영광	맑음	10/24
나주	맑음	9/27	진도	맑음	11/21
완도	맑음	13/22	전주	맑음	12/28
구례	맑음	8/26	군산	맑음	11/23
강진	맑음	11/23	원주	맑음	9/26
해남	맑음	10/23	홍산도	맑음	11/18
장성	맑음	8/2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부	남~남서	파고(m)	남~남서	파고(m)
남~남서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남서
남~남서	남~남서	1.0~2.0	남~남서	1.0~2.5	남~남서
남~남서	남~남서	0.5	남~남서	0.5~1.0	남~남서
남해	남해(동)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서부	면바다(서)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 생활지수

- 주요: 식중독, 자외선
- 매우높음: 미세먼지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21	11:28
	18:24	23:31
여수	밀물	썰물
	00:53	06:59
	13:04	19:07

◇ 주간 날씨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	☀	☁	☁	☀	☀	☀
14/23	14/25	15/24	15/21	14/25	13/26	13/26

퇴색한 ‘스승’의 의미... 교권침해 여전

전남교육청, 욕설·폭언 등 지난해 99건 접수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생님이란 단어의 무게감을 느끼기는 커녕, ‘꿀벅지네요’, ‘몸매가 좋다’ 등 성희롱 발언을 내뱉는 학생들에 의한 침해 뿐 아니라 학부모들에 의한 침해도 여전하다.

전남교육청은 11일 전남지역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모두 99건이 접수돼 전년(89건)에 비해 다소 늘었다고 밝혔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이 90건으로 지난해(84건)보다 늘었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9건) 사례도 전년(5건)에 비해 증가했다.

다만, 학생·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교사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교육청 분석이다. 최근 4년간 전남지역 교권 침해 사례는 ▲2012년 116건 ▲2013년 98건 ▲2014년 89건 ▲2015년 99건 등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교권보호센터를 통해 접수된 지난해 광주지역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모두 99건이 접수돼 전년(89건)에 비해 다소 늘었다고 밝혔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이 90건으로 지난해(84건)보다 늘었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9건) 사례도 전년(5건)에 비해 증가했다.

다만, 학생·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교사가 있을 것

초·중·고 학생부, 부모 지위 암시 내용 못적는다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지 못하도록 명문화됐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학생부 기재요령’ 지침을 전국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부에는 이미 각종 공인학력시험 성적과 교외 경시대회 수상실적, 모교 사 등의 성적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됐다. 그러나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교육부는 일부 고교에서 시행 중인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는 이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했지만 나머지 학생부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축** **오픈**

Self MG 서양새마을금고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가계부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연락처 : (062) 720-2872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 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방지에는 스틸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 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고민 단열방수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샘들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1599-7652
NAVER 연합건설@ 검색